

文化 창조와 大學

朴 惠 敬

(嶺南大 佛語佛文學科)

현대 과학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문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에 의해, 경제 활동에 의해 인간의 物的 토대에 대한 신화가 창조되면 될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정신적 자존과 자율 영역 확보를 통해, 즉 文化 活動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져 대등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음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그 인간 본위의 다양성과 개체 존중과 모순되지 않는 시대성·역사성, 물질 토대에 대응하는 초월성 등을 통해 인간의 質的인 삶과 관련하며, 정치·경제·법 등의 사회 제도와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더 나아가 물질 재생산 구조를 형태짓기까지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문화 형태를 창출해 내려는 노력이 끊임 없이 추구될 때 그 사회가 집단적·무의식적 정체성이나 물질 가치 속으로 함몰되는 것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풍요나 빈곤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비록 표면적으로나마 정책적으로 부추기는 이유 역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문화란 흘러간 유물로 석고화되어 기억되는 전시품이 아니며 그것이 단순한 전승·

보존의 차원을 뛰어 넘어 재창조되지 않을 때 그 생명은 맥이 끊기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문화 전승·창조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대학의 모습을 보자.

대학의 역할은 문화와 전문 지식을 계승·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수시키는 것이며, 공간적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自國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주고 받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즉 대학은 정신이나 지식에 관한 한 최고 수준의 寶庫이며 集大成으로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야말로 한 사회 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전문교육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 그 첫째는 중·고등학교 敎育의 歪曲으로 기본적인 문과학적 소양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교양 과목 이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전문 전공 과목만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올 수 있는 정신적 空洞 현상이다. 둘째는 知的 전문성 외에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 배출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공 계통의 특정 학과를 제외한

학생들의 相對的 無力感이나 疏外感이다. 몇몇 학과 졸업자들에게는 비록 시험 제도가 있긴 하나 졸업과 더불어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경제적 대우가 보장되며 기업이 요구하는 몇몇 학과 학생들은 그런대로 경제적 출구가 열려 있으나, 그렇지 못한 文科 계통 졸업생들의 경우 일찍 전공을 포기하고 취업을 위해 변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나 국가 정책이 기술이나 물질 위주의 인간 양성을 인문과학적 자원보다 우선하는 데서 기인하며, 대학의 가장 본연적 임무인 문화 창달을 소비 산업 사회와 고도의 테크놀로지의 산업 구조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모적이고 무기력한 행위로 轉化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자연계 학생 모집 비율을 인문계보다 상향 조정하겠다는 문교부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과학이나 정치·법·경제 행위도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哲學的·道德的 성찰을 갖추지 않은, 즉 인문과학적 소양을 결여하고 있는 행위는 함께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해 위협적이 되리라는 것이다. 올바른 자아관·대타관 그리고 역사 인식이나 사회 의식이 결핍된 과학 연구 행위, 정치·경제 행위는 反人間化의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많음을 우리는 위기 의식으로 느끼고 있다. 반면에 전문 직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한 채 막연한 불안 속에서 학업을 이수하는 인문 계통 학생들에게 높은 학구열이나 전문성을 요구함도 무리가 있다. 결국 대학교육의 전문성은 취업 구조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으며, 이제는 당장의 물질 기대치에 근거한 정책이 아닌 보다 고도화된 정신 문화 속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를 마련하려는 장기적이고 야심적인 정책을 우리가 끈질기게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인문 계통 학생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이 좌절됨은 학문의 자생적 적응력이나 학생들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

조가 인간 대신 금전과 물질을 궁극 목표로 삼아 인간 자신을 소외시키고 인본적 문화 장치 제도를 직업으로 창출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향락적·소비적·퇴폐적·상업주의적 문화 현상에 대응하여 결성되는 많은 소규모적 문화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도권 밖의, 개인의 헌신적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기실 기본적인 인문과학의 소양은 감수성이 보다 풍부한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육을 통해 뿌리내리고 키워져 인간과 자신 그리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형성된 다음, 대학교육에서의 전문교육을 통해 현실적 토대와 연결될 수 있는 힘으로 커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의 교육 실정은 이 가장 값진 청소년기를 그대로 유실·왜곡시켜 버리는 것이며 이 상태에서 계속 주입되는 이공계 계통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는 이러한 전문성마저도 취업 구조로 인해 보장받지 못하는 인문 계통의 학생들은 그야말로 졸업장을 얻는 외에 대학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자기 개발과 현실적 성취감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물질 생산 가치에 편중된 사회나 의식 구조는 이에 따라 편성된 교육 제도를 낡게 하며 결과적으로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 순수한 의미의 정신 영역의 활동을 위축 또는 중속시키게 될 것이다. 다행히 학생들 스스로 꾸미는 대학내의 여러 문화 행사는 이즈음 지나치게 도식화되기는 했으나 自主와 平等을 기치로 행위의 能動的 主體가 되는 것이나, 組織化와 創造性이 요구되는 것이나, 사회의 여러 모습을 診斷·批判하는 것 등을 통해 지향되어야 할 우리 문화의 지표로 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일반 사회와 유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은 대학이라는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어 졸업자들은 사회 진출과 더불어 거대한 사회 조직 속에 그대로 편입·흡수되어 새

로운 문화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 문화와 사회 문화의 분리를 보게 되거나 혹은 대학 문화가 사회 일반 문화의 부정적 측면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소비·향락지향적이거나 개인주의적·현실주의적 안일주의 등이 그것이며, 표면에 드러나는 객관적·자유주의적 행동 지향과는 모순되는 고착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대학 사회가 일반 사회의 모습과 달리 현실의 모든 실상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이를 감지·비판하며 더 나아가 찾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어지는 때에, 기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대학 자체가 안고 있는 정체적 속성이다. 대학은 量의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의 특권 세력이며 보수 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이를 고수하려는 폐쇄성으로 드러나고 대내적으로는 첨예한 갈등이나 대립을 노정시킬 수 있다. 문화를 그대로 보존·전승 혹은 학문적으로나 정립·발전시키려는 의도와 새로운 문화 지표를 창출하여 대중 사회와 접촉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 문화·의식까지 창달하려는 의도가 상충하기도 한다. 이러한 충돌은 정치적 견해와 학교 행정 문제에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의 역동적 성격으로 볼 때, 이러한 다양한 인식의 공존은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다양성과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기득권의 영역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학문적 갈래나 소신에 의해서라기보다 이해 관계에 기초한 地緣·學緣 등에 의해 좌우되는 학사 운영은 각 학회나 학과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 각 조직을 지배하는 파행적이고 주관적인 사무 집행의 관례는 연령이나 성별에 의한 독단적 학과 운영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신으로 사회와 자신에 대한 날

카로운 비판 의식을 지니며, 특권에 안주하지 않고 수평·수직적으로 견제하고 소박한 인간 관계를 형성코자 하는 개체로 서기보다는 대학 사회의 보수성을 심분 활용하여 안주하기는 쉬운 일이다. 창조성과 자율성 유도를 위한 강의 내용에 대한 무제한적 자유가 나태로 인한 無內容性으로 대치되거나 강의 시간의 신축적 운용이 임의적 단축 수업이나 휴강으로 돌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든든한 지연·학연의 인맥으로, 사회가 턱없이 부추기고 이용하는 교수라는 권위로, 좋은 학점만으로 만족하는 학생들로 인해 가능해진다. 안으로는 민족적·주체적 문화 내용을 새로 꾸미고 밖으로는 세계를 향해 바로서 활발하게 자기를 열어 보이는 자신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기보다 닫힌 공간에서 그것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회가 실어준 기대치와 권위를 업고 자질구래한 썩음에 집착·정체되거나 오염된 사회의 경직된 조직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의 전승이니 창조니 전문 지식이니 하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우리의 발 딛고 선 출발점이 바로 된 곳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미 익숙하게 몸에 배어버린 관료적·계통순위적 사고를 벗어 버리고 개인의 능력과 창조력이 독려될 때야 비로소 그것은 문화 창달을 위한 올바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순응주의적 태도, 연령, 성차별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보수적 인사 행정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학 사회도 하나의 사회임에 틀림없으나, 사회가 지닐 수 있는 病的인 속성을 진단·개선시키려는 정신적인 성찰과 시험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을 때 그러한 대학의 존립은 지식을 통한 기득권 추구의 집단 이외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 집단을 정부의 관료적 통제나 몇몇 재단의 종속된 위치에 머물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은 대학 자체의 문화·정신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대학은 고급 實業 교육 기관이 아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어찌면 전문 인력 양성도 문화 창조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규모만 커져버린 虛勞의 집단인지도 모르겠다. 이즈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기업은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으며, 혹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존재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만한 문화 예술적 고용을 창출해 내었는지 의문이다. 정부나 대학 당국은 또 얼마나 문화와 과

학 두 축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식적인 시도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다양한 학과가 다양한 전문 지식을 위해 연구와 모색을 계속하고 있겠으나, 그 근본을 관통하는 것은 인간 본위의 인간 자신을 위한 추구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회의 많은 부조리의 현상으로부터 純化될 때 대학은 문화 창달과 전문 지식의 계승·발전이라는 제 소임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